

읽기 쉬운 선 수행 교과서 '몽산법어'



몽산법어
원순 스님 역해
도서출판 법공방
1만2000원

수행중 졸음 올때 대처법 꿈속에서 화두잡는 마음 가짐 등 화두선 참구 방법 상세하게 제시

“어떻게 해야 화두를 잘 참구할 것인가?” 한국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는 가운데 선 수행의 깊잡이로 각광 받아온 <몽산법어>가 한글세대의 입맛에 맞게 발간됐다. <몽산법어>는 ‘선의 교과서’로 불리며 만큼 수백년에 걸쳐 수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읽어왔다. 특히 선방에서 화두선을 참구하는 남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책. 원순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교신사)이 역해한 <몽산법어>는 옛 글부터 현대 문헌까지 위주로 된 기존의 책들과

달리 깊이 있는 현대적 해석이 압권이다.

이 책은 고려말 나옹 스님이 원나라에 가서 몽산 덕이 스님(1231~?)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몽산 스님의 법어 6편과 자신의 법어 1편을 엮어 만든 <몽산법어 약록>과 원산 선사, 동산 송장주, 고단 스님의 법어 4편이 실린 <몽산법어연해>를 저본으로 재구성해 엮었다.

<몽산법어>에는 수행하다 졸음이 올 때는 일어나 열 걸음을 걸어 정신을 맑힌 뒤 자리에 앉을 것이며 꿈속에서의 화두를 잡는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하는 등을 자세히 후학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몽산 스님은 대중에게 하는 설법에서 세속의 번뇌와 모든 인연을 끊고 외롭고 특이도 삼간채 일심으로 선 수행을 하면 3년 이내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격려도 잊지 않는다.

완산 선사는 신심을 가진 후에 계행에 힘쓰고 그런 연후에 다시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열심히 참구하면 깨달음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동산송 장주(부처 도서판 권리 직책)는 행각을 떠나서 제자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화두를 참구하며, 앞선 수행자는 모두가 선지식이니 정성껏 법을 청하여 공부해 가라고 당부한다.

뒷부분에는 박산 무이 선사(1575~1630)의 법어를 모은 참선 지침서인 <선경어>의 요긴한 부분도 간추려 놓았다. 무이 선사는 참선법으로 ‘화두를 공부할 때는 먼저 삶과 죽음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굳세고 이 세계와 몸과 마음들이 다 거짓 인연이어서 실로 어떤 주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펴낸 원순 스님은 “개인적으로 아직 경전이나 어록을 보는 눈이 밝지 않지만 간화선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작은 힘이나마 정성을 다하여 옛 선사의 가르침을 읽기 쉽게 옮겨보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nia.com

새로운 책

■ **인간학 불교** (정승석, 정우서적, 8000원) = 동국대 인도철학과 정승석 교수가 풀어낸 불교학 개론서인 <인간학 불교>. 저자는 인간학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 전체의 역사에서 전개된 교리와 사상을 모두 끌어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향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불교입문 혹은 개설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로버트서먼, 한겨레신문사, 1만2000원) = 서구인 최초로 티베트 불교 스님이 왜 미국에 불교를 대중화 하는데 공헌한 로버트 서먼이 쓴 행복의 길을 제시한 안내서이다. 저자는 한 개인이 삶의 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행복의 문을 여는 7가지 열쇠를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지혜, 배움, 정의, 인내, 창의성, 선, 무한한 삶의 예술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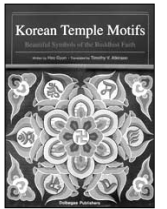


■ **금강경 깨달음에는 길이 없다** (김광경, 운주사, 9000원)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은 <금강경>이다. <금강경>은 대부분의 다른 대승경전과 마찬가지로 불멸후 5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운동에 의해 찬술된 경전이다.



무역을 하며 불교인권복지단체인 작은손길을 운영해온 김광경 대표가 불교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공부하며 틈틈이 공부한 내용을 엮은 책. 김 대표는 금강경을 기존의 불교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불교도들의 새로운 메시지로 이해했다.

■ **korean temple motifs** (허균, 돌베개출판사, 3만5000원) = 영이권 독자층의 눈높이에 맞춘 아름다운 그림과 신비함을 간직한 한국의 사찰문화를 소개하는 영문판 안내서. 저자 허균이 5년동안 전국 250개 사찰을 답사하며 찍은 사찰 전경을 채우고 있는 조개와 물고기, 토끼와 자라, 닭집속에 감춰진 기운찬 용의 모습, 탑을 바치고 있는 사자의 다양한 입모양 등 300여컷의 다채로운 사진들로 채워져 있다.



“퇴임 후 불서 번역에 매진할 터”

■ 정년퇴임 앞두고 ‘운명의 변화’ 펴낸 이기화 교수

법연사와 1만여권 법보시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이기화 교수(서울대 자연과학대학·사진)가 지난 2년간 법연사 홈페이지(www.bubryun.com)에 연재했던 <요법사훈> 번역문을 책으로 펴내고, 서울 법연사주지 보경와 함께 법보시에 나선다.

이 교수가 펴낸 <운명의 변화>는 16세기 명나라 원료법 거사가 그의 아들 원천계를 위해 쓴 <요법사훈>을, 대만의 고승 정공 법사가 강술한 <수복속덕조명법 요법사훈강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정년퇴임에 맞춰 형식적으로 펴내는 기념본종 대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서를 펴내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 책은 마음을 바꿈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어, 각 가정에서 꼭 한 번 읽어볼만하다고 생각해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원료법 거사는 <요법사훈>을 통해 인과사상을 기반으로 허물을 고치고 선행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개조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악행을 끊고 선행을 하라’는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준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요법사훈>의 인성교육 효과를 높이 사 어린 자녀에게 꼭 읽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법연사 주지 보경 스님 역시 이 책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이 책을 1000권 출간해 여러 사찰에 배포했으며, 이번에도 다시 1만권을 펴내 불자들에게 법공양한다. 이 교수는 “아직 불교에는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퇴임 후에는 본격적으로 불서 번역에 매진해 불자들이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준다면 그것만큼 큰 선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운명의 변화
정공법사 강술
이기화 옮김
불일출판부 | 1만원



붓다의 나라 미얀마
김형규 지음
도서출판 운주사
1만원

붓다의 숨결 가득한 미얀마

“미얀마는 전 국토가 거대한 탑의 밭이다. 번잡한 도시에서부터 한적한 시골, 험한 산 속, 깊은 동굴까지 탑은 어느 곳이나 있다. 심지어 물로 가득찬 호수에도 탑들이 예외없이 나타난다”

<붓다의 나라, 미얀마>를 펴낸 법보신문 김형규 기자는 붓다의 숨결 가득한 탑의 나라 미얀마를 불국토라고 소개한다.

이 책에는 광활한 평원에 펼쳐진 탑과 황금대탑, 석장경, 탁발하는 스님들의 모습 등 미얀마의 다양한 모습들이 150장의 아름다운 컬러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다. 또 단순한 코스 탐방이나 유적 안내가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모습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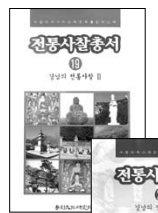
내 마음의 복전
신화규와 43명 지음
불광출판부
9000원

부처님 만나 행복하리라

부처님을 처음 만나면서 느꼈던 감동, 그리고 달라진 삶. 부처님 그늘에 살면서 느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담 44편을 묶은 신행수기집 <내 마음의 복전>이 출간됐다.

“나와 불교의 만남(연담) ‘부처님이 주신 은혜(가피, 영험담) ‘일상 속의 신행(수행체험(전법, 수행담) 등 <월간 불광> 창간 30주년기념 신행수기 공모작을 포함하여 그동안 잡지에 게재된 내용 가운데 부처님의 가피가 느껴지는 감동적인 내용이 선별됐다.”

신행수기는 세상살이가 힘겹고 외로울 때 포근한 위안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



전통사찰총서
19, 20권
각권 1만5000원

통도사·해인사 등 경남사찰 71곳 탐방

전통사찰총서 19·20 사찰문화연구소 | 각권 1만5000원

사찰문화연구소의 <전통사찰총서> 19, 20권이 나왔다. 19권(경남의 전통사찰 II)에서는 양산 통도사를 비롯해 양산시의 밀양사, 사천시,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의 33개 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또 20권(경북의 전통사찰 III)에서는 해인사 등 함안군과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의 38개 사찰을 탐방한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일곱 번째 완성자

미륵

우리 곁에 오신 미륵

해조음 권 원통 저 신국판 390쪽

금강경 속에 담긴 사람수명 팔만사천세의 의미

아함경에는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되면 미륵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미륵이 오시면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의 시대가 된다. 이러한 믿기지 못할 내용이 금강경 사상이다.

금강경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 후 오백세(말법시대)를 위한 경이다.
2. 이 경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그를 천대 멸시, 배척 할 것이다.
3. 이 경을 공부해서 얻어질 공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워 미쳐버릴 정도이다.
4. 수명에 대한 상(相)을 가진 사람은 이 경을 이해 못한다.
5. 법신과 세계와 중생은 본래 하나로 합한 모습이다.

이러한 등등의 내용은 사람 몸이 금강불괴신이 되어 팔만사천세를 사는 진해탈을 암시하고 있다.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보급 총판 운주사 02) 3672-7181 ~ 5 / 010-3699-9120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수룩내용 ■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뀌고 생각하는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임대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공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남자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동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옥(망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neet.co.kr